



오전 6시 장사진 도서관 21일 오전 6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중앙도서관 별관.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도서관 입실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공천 잡음에 참여·평민당 '이삭줍기'

광역·기초의원 잇단 탈당 당적 옮기기

민주당 일색 호남 정치 지형 재편 촉각

오는 6·2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과 평화민주당(이하 평민당)의 '이삭줍기'가 시작했다. 민주당의 공천 방식에 반발한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이 잇따라 민주당을 탈당, 참여당과 평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있다. 이들의 지방의회 입성 여부는 유권자 손에 달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일색인 호남의 정치 지형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 관측된다.

21일 참여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박석원 전 광산구의회의장과 강기석 전 서구의회의장이 민주당을 탈당, 참여당에 합류하는 등 참여당 '입당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당 소속으로

광산 제2선거구(우산동, 월곡 1·2동, 운남동, 신흥동)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정체성과 뿌리도 없는 정당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기준도 천대만상이어서, 대의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선정 기준도 투명하지 않고 깨끗하기 식으로 후보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의장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하고 참여당 소속으로 광주시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중이다.

참여당 관계자는 "지방의원 후보자 1차 마감일(22일)이 다가오면서 입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 정체성에 어긋난 후보 난립 막기를 위해 당 차원에서

검증장치 등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참여당은 후보자 모집 1차 마감 이후에도 전략공천을 할 예정이어서 '입당러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창당한 평화민주당도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공모하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 평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예비후보들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당의 경선관리 부재로 인한 '공천 잡음'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기 사람 심기'로 인한 반 민주당 정서가 광배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면서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의 탈당과 함께 참여당 행을 택하고 있어 민주당 중심이었던 호남 정치지형에 변화가 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최권익기자 cki@

司正 칼바람... 선거판 요동

전주언 광주서구청장·김충식 해남군수 구속영장

민주 경선 혼돈... 시·군 2~3개도 수사

검찰과 경찰이 21일 민주당 소속인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과 김충식 전남 해남군수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수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신청하면서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6·2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민주당 후보인데다, 특히 김충식 군수의 경우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이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직후 '공천 잡음'으로 지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터져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서구청장과 해남군수 선거판에도 요동칠 전망이다.

광주 서구청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중인 광주지검은 이날 전주언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 청장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당원모집과

선거전략 수립 등에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전 청장에 대한 2차례의 소관 조사와 전 수행비서와 총무국장, 총무과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은 "입당원서 모집을 지지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도 이날 관공공사 발주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역대 의 뇌물을 받은 김충식 해남군수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달 15일 밤 9시40분께 해남군 우슬경기장에서 모 경관 조영업체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는 등 조경 관련 업체 3곳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 군수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택 옷장에 있던 현금 1억9000만 원을 전액 압수했다.

이날 민주당의 해남군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 군수는 경찰의 영장 신청 직후 군수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남군수 후보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점자인 김항욱 예비후보 또는 제3의 인물이 다시 가세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어 해남군수 선거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경찰은 또 전남지역 자치단체 2~3곳에서도 경관 조영사업과정 등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잡고, 일부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기초단체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검, 트위터·포털 동원 신종 선거범죄 수사

대검찰청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게시물 올리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다수의 홍보성 글을 게재한 사건을 신종 선거범죄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단문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선거운동원들은 트위터에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 1 등이라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가입 해지된 전화 2천회선을 개통해 선거운동원 휴대전화로 착신해 하고 여론조사에 응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건도 신종 선거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희스

목포~부산 2시간대 생활권 조성

광주·대구 R&D 특구 연내 지정

남해안권을 동북아 물류·경제와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목포~부산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개발되고 남해안 일주 철도의 고속화가 추진된다. 광주가 연 구개발(R&D)특구로 지정되고 J프로젝트(서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의 조기 개발이 추진되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발전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심의, 확정했다.

지역발전계획에 따르면 남해안권은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4조 3000억원을 들여 ▲세계적 해양 관광·휴

양지대 조성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성 ▲통합인프라 및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목표로 개발된다.

아울러 남해안권에 부가가치가 높은 조선(造船)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고용과 보성 등에 항공우주·신소재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유치하는 한편, 부산·광양항에 배후 물류 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 종합물류 거점을 발전시키고 여수·목포항 등을 재정비해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남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포~부산간 국도 77호선을 점진적으로 확장, 2시간대 생활권으로 단축시키는 한편, 남해안 일주 철도의 고속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주·대구를 연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광역경제권 내 R&D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설정해 호남과 영남의 대표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예술제 접수기간 미술·작문 부문 5월 6일(목) ~ 13일(목) http://art.kjmedia.co.kr 062/220-0541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 양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KEPCO 광주전남본부 투명하고 경쟁력있는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섭니다. 고객문의 위주 업무 개선·발전. 에너지 안보와 환경 고취를 위한 노력과 기쁨을 전하는 좋은 KEPCO 광주전남본부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